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댜에는 반 짝이는 금모래 빛/ 뒤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내가 김소월의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렸을 적에 강변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고가처럼 ‘차령산맥 비단 장막 둘러친’ 사이로 금강 상류인 보청천의 맑은 물줄기가 구불구불 휘돌아 나가는 곳, 흔히 ‘어부동’으로 불리는 곳이 나의 고향이다.

강변에 살다 보니 어려서부터 개해임과 자맥질을 익혔고, 강변의 모래사장과 나무터가 놀이터였다. 행인을 건네주는 작은 나룻배 대신 평평하고 널찍한 차량용 나룻배에 버스를 싣고 서너 명의 사공이 노를 찼고 줄을 당겨 강을 건너는 광경은 언제나 불만만 구경거리였다. 강변의 ‘진사래밭’(진 사래 밭)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어른들이 큰소리로 부를 때까지 아이들은 하루 종일 소를 뜯기거나 다슬기를 잡거나 물수제비를 뜬다 놀았다.

6·25 전쟁 중에는 입대하는 장정들이나 휴가 나왔다 귀대하는 병사들이 눈물로 가족들과 작별하는 곳이 강변 나무터였다. 휴전 후에는 강변에서 무모한 청년들이 누가 더 오래 버티다 ‘강’(버판)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지 ‘강’(당력)을 겨루다가 손목을 날리기도 했다.

동네 아이들은 수십 깊은 나무터에 미군이 상자째 버리고 간 기관총탄을 주우러 자맥질을 하곤 했는데 한번은 수영이 서툰 내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동네 청년이 구해준 적도 있다. 그는 내 생명의 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라미 낚시와 새집 뉘지기, 두꺼운 얼음장을 띄메로 쳐서 고기 잡는 법 등을 가르쳐준 인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생의 스승이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후 나이가 들어 고향을 떠나 살면서도 나는 어부가 한 명도 없는데 어째서 동네 이름이 어부동일까 의아해 했는데, 대청댐 공사로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그 의문은 저절로 풀렸다.

평생 농사만 짓던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으나 몇 사람은 고향 마을에 남아 농사 대신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려가게 된 것이다. 상전벽해라더니 공백한 강변의 농촌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바다처럼 드넓은 호수가의 어촌마을이 된 것이다.

평생 바다 구경을 하지 못한 시골 노인들이 충주 댐으로 생긴 거대한 호수를 보

고는 “아마 바다도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감탄을 하더라는, 천진난만한 어린애처럼 깔깔대기를 잘하는 원로시인 신경림 선생의 우스갯소리를 나는 곧이곧대로 믿는다. 내가 바로 대청호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한 촌놈이니까.

그러나 거대한 댐에 막혀 고여 있는 물은 이미 살아 있는 물이 아니다. 강변의 반 짝이는 금모래는 사라지고 여울물을 헤엄치던 피라미는 보이지 않는다. 덩치 큰 잉어나 가물치, 외래종 베스와 부르길 같은 포식성 어종들만이 활개를 치고 여름철이면 녹조가 끼어 물이 썩는다. 광음을 울리며 호수를 달리는 모터 보트나 유람선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타 본 적이 없다.

그런 내 기억 속의 맑은 강물에 대한 모독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낙동강 하구댐이 생긴 다음에는, 자주 찾던 을숙도에 발길을 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흐르지 않는 강은 더 이상 살아 있는 강이 아니다. 강줄기를 막고, 모래를 파내고, 독을 쌓고, 시멘트벽을 치고, 구불구불한 강줄기를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은 강을 토막내고 우리에게 가두어 죽이는 일이다.

독일이나 스위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식의 직강화사업을 했다가 홍수와 지하수 고갈 등 각종 생태계 파괴의 부작용 때문에 뒤늦게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구불구불하고 모래가 쌓이는 강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터에 몇 십조의 국

민세금을 퍼부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을 죽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나는 얼마 전부터 ‘4대강 사업 즉각 중단’이라는 팸플릿을 내 차에 붙이고 다닌다. 그것은 4대강 사업의 현장을 보고 “그 일을 추진하는 측은 말할 것도 없고,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별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신경림 시인의 추상같은 꾸지람 때문만은 아니다.

4대강 사업에 항의하여 선방의 스님이 소신공양을 하고, 70 넘은 골재채취업자가 자살을 하고, 신부님들이 삭발을 하고, 국민의 80%가 반대를 하는데도, 군대까지 동원하여 올해 말까지 공정의 60%를 끝내겠다는 오만방자한 정부에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생명의 강을 거대한 시멘트 우리 속에 가두어 죽이는 현재의 4대강 사업과 먼 훗날의 4대강 복원사업으로 계속 돈벌이를 하게 될 건설업자들의 이익이 국민 다수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말인가. 사진발 잘 받는 강변자전거도로와 유람선을 일기중의 업적으로 내세우려는 정치인들의 알락한 속셈이, 제발 강을 흐르게 내버려두라는 국민 대다수의 소망보다 그렇게도 중요하단 말인가.

민심은 천심이니,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전승현

2년 전 한 일간신문의 보도에 잠시 생각을 빼앗긴 적이 있다. 내용인즉 독일의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30%에 불과한데 그들은 목재를 수출하고 있고, 국토의 65%가 산림인 우리는 그 목재를 수입해서 쓰는데 이것은 땅덩어리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산림의 가치에 눈을 늦게 뜬 탓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독일 나무의 평균수명은 3백년이지만 우리 나무는 그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땅이라도 어떻게 보고 무엇을 담아 미래를 대비하느냐에 따라 그 땅

또한, 생태형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설계전이나 도심하천에 습지를 조성하고 공원녹지, 유휴토지 조립사업 등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도시의 지형과 식생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타지역과의 차별화이다. 우리 지역의 도시가 다른 곳과 똑같다면 타 지역 사람들은 우리 지역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전남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 이상이 도시계획 속에 녹아들어야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

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된다.

우리도 앞으로는 땅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노력들을 다양하게 전개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이다. 도시계획은 원광석을 다듬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처럼 주어진 땅을 다듬어 생명을 불어넣는 근본 설계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개발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는 우리 전남으로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며, ‘녹색 전남’의 실현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방향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 수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시 구조를 직장과 주거지 근접형으로 개편하고, 자원 순환형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태양열, 지열 등 복합에너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우리 도에서는 여주시, 순천시, 담양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저탄소 녹색도시 표본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우리 전남은 섬과 해안선 등 아름다운 자연자원이 있고, 맑은 공기,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많은 일조량, 따뜻한 기온 등 삶의 여건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성장의 밑거름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내고자 한다.

앞으로의 세계는 자연과 친화적인 녹색성장 산업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개성이 살아 있을 때 그 지역은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 도시계획도 철학이 있고, 미래지향적이며 후손의 짐은 덜고 행복은 더하는 쪽으로 전환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전남도 지역계획과장〉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시설

李 대통령 국정쇄신 방안 실망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6·2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정 쇄신 방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TV와 라디오로 생방송된 연설을 통해 인적 개편, 세종시 건설과 4대강 사업 추진방향, 천안함 사건 처리 등 국민의 관심이 쏠린 국정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의 큰 틀과 인적·시스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일단 선거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쇄신 방안은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다. 우선 인적 개편에 대해 구체적 폭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그에 맞는 진용을 갖추겠다”며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각각 ‘국회 표결’과 ‘소통과 설득

노력’을 강조했지만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세종시 문제는 국회로 슬그머니 넘겼고, 4대강도 찬반을 둘러싼 자금의 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기자회견 같은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일반통행식 전달방식을 취한 방법론적인 면에서 아쉽지만 내용면에서도 한나라당 내 쇄신파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했다. 무엇보다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지방 민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빨리 전면적인 당·정·청 인사 개편과 국정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제2의 조각(組閣) 수준에 가까운 인사 및 국정 전반에 걸친 쇄신책을 내놓아 새출발해야 한다는 얘기다. 변화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빨리 변할수록 좋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진정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국정쇄신과 인적 개편에 실기(失機)해서는 안될 것이다.

도를 넘어선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

광주·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예산 범위를 넘어선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무려 1억7235만412원을 연체했고 추가로 부담한 연체 수수료만 5425만9639원에 이른다

는 현행이다. 그럼에도 월세가 줄줄 새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 만일에 자기 재산이라면 이렇게 방만한게 운용할 수가 있겠는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다.

자치단체장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필요하다. 축제와 행사의 중복 개최는 예산 낭비의 전형이다. 이제 민선 3기에 접어들면서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구와 광양시 등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물건에 대한 경매 배당금이 공탁되면 즉시 수령해 세입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시효가 만료돼 국고로 귀속됐다. 여주시는 지난해 30개 축제·행사에 대해 성과 평가도 하지 않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먹구구식 행사 운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전남지역 군 단위 14곳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의 월급조차 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월세가 줄줄 새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 만일에 자기 재산이라면 이렇게 방만한게 운용할 수가 있겠는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다.

자치단체장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필요하다. 축제와 행사의 중복 개최는 예산 낭비의 전형이다. 이제 민선 3기에 접어들면서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돌아가 가뜰이나 열악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재정운용만 잘해도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아마 40~50대는 물론이고 30대들도 기억할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고교생 때 등하교시 교문에서 가끔 마주쳤던 사람, 수위(守衛) 아저씨를 말이다. 학교 경비와 함께 굶은 일을 도맡아 하던 수위들은 ‘배움터 지킴이’였다. 여학교 수위 아저씨들은 가끔 학교 문 주변을 기웃거리며 남학생들에게는 눈엣가시였겠지만 그들의 역할은 작지 않았다.

수위 덕분에 학부모들은 안심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사람들이 학교에 발을 들여놓을라치면 곧바로 수위가 제지했다. 그만큼 학교는 안전할 수 있었다.

학교와 학생을 지켜주던 수위들이 언제부턴가 자취를 감추었다. 1990년대 들어 인력감축 방침에 따라 학교 정문을 지키던 수위들이 사라졌다. 대신 폐쇄회로(CC) TV가 자리를 차지했다. 이와함께 학교안전요원이 배치됐지만 이들은 매일 오후 늦게 출근해 다음날 오전 일찍 퇴근하는 탓에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에 이웃집 아저씨처럼 보살

피주던 수위들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 내에서 여자 초등학교생이 납치된 후 성폭행당한 ‘김수철 사건’이 일어나자 또 학교 안전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학교안전망을 강화한다며 부산을 떨고 있다.

당국이 사후약방문 격인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학부모들은 수위제도를 부활시켜달라는 주문

이다. CCTV 관측 결과, 범인 김수철이 이번 사건 발생 전 학교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이 적혀기는 했지만 제지할 수는 없었다. 만일, 학교 수위가 사건 당일 아침 소주 1병과 맥주 2병, 캔맥

주 1개를 마신 상태였던 경우 발경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 학교는 수위 대신 똑똑할 것으로 여겨졌던 CCTV를 세웠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비용 절감도 좋고, 과학화도 좋지만 아직 사람의 눈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박치경 사회1부장 unipark@kwangju.co.kr〉

NGO 칼럼

이신



2000년 6월 15일은 삼천리 강산이 춤을 추고 온 겨레의 심장이 두근거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날은故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손을 꼭 잡고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여는 첫날이다.

축복 속에 태어난 6·15 공동선언, 우리의 통일 욕동자는 수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이 남북관계는 놀랄 만큼 달라졌다. 동해 바닷길이 열리며 100만 명이 금강산에 오르고, 평양 하늘길이 열려 3만 명이 아리랑 공연을 보고 평양시내 관광을 했다. 또한, 개성

현실은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 중 하나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며, 아이들의 행복을 좌우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국민들은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심판하며 복종을 애타게 기대하던 세력에게 10년 동안 보이지 않게 성장했던 6·15의 힘을 통쾌하게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는 6·15 통일시대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심을 바로 읽고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바꿔 6·15 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남북정상

6·15 공동선언 이행 적극 나서야 한다

기차길과 고속도로가 이어져 남과 북은 끊어진 열매를 복원했다.

드디어 2006년 6월, 북측 대표단이 광주공항에 첫 발을 내딛고 5·18 묘역을 참배하던 때의 감동과 여운이 아직도 가슴에서 새겨있다.

무엇보다도 6·15 통일시대가 선물한 가장 큰 복은 국민의식의 변화라고 여겨진다. 국민들은 대결과 증오심이라는 분단의 족쇄를 벗어 버리고 화해와 협력의 기운을 흠뻑 받아들였다.

그러나 6·15선언을 부정하고 냉전시대로 돌아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으면서 바닷길과 기차길이 막히고 하늘 길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제 통일 욕동자는 손발이 묶이고 입마져 틀어 막혀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

바야흐로 ‘6·15선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갈림길에 와 있다.

회담을 주도하여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6·15공동선언 제2항 실현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남과 북이 사는 현명한 길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변화를 요구하면서 통일이 시대정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지방선거에서 이런 승리 경험과 지혜를 함께해야 한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박지성과 정대세가 한 팀이 되어 첫 골을 넣는 짜릿한 순간을 맞이해보면 어떻게?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물이 되듯이, 국민들의 재능과 힘을 모은다면 이번 선거처럼, 박지성의 골 것처럼 상쾌한 일들이 떴어 나타날 것이다.

〈6·15 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 교육위원장〉

공권력 무시하는 행태 뿌리 뽑아야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직업상 승객들을 웃는 낯으로 대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상황이 도저히 그렇지 못 할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치안센터를 찾게 된다.

하지만, 치안센터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어 개운치 않다. 즉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대거나 경찰관의 먹살을 잡고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만 하는 만취한 승객. 이런 모습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

으로 마음이 착잡했다. 치안센터에서조차 공권력이 무시되면 우리의 공권력은 어디에서도 존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공권력은 국가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국가권력이다. 치안센터에서 벌어지는 공권력 무시 행위는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세준·광주시 남구 도감동